



國內 최초로 產學財團 基金出捐

貿易協會, 임시總會서 決議

貿易協會는 5일 임시總會를 열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產學協同財團의 設立을 위한 基金出捐을 決議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朴忠勳貿易協會會長은 『80年代의 수출목표 1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技術의 革新을 통한 製品의 品質向上으로 輸出稼得率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 產學協同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고 역설하고 『企業과 學界및 勤勞者가 三位一體가 되어 輸出증진과 國民經濟발전에 기여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產學協同財團設立基金으로 出捐결의된 第一次 基金額은 10억7천3백만원이다.

그런데 貿易協會는 輸入特殊會費징수율을 종전 輸入代錢의 1%였던것을 2월1일부터 0.5% 인하하며 수입특수회비로 조성된 輸出振興特別會計資金을 輸出진흥을 위한 目的뿐아니라 產學協同을 위한 目的에다 使用키로 하는 한편 수출특수회비징수금에서 생긴이자도 산학협동재단에 출연키로하고 產學財團의 세부 사항은 任員會에 위임했다.

第23回 定期總會盛了 25日 大韓電氣學會

지난 25日 大韓電氣學會는 韓電講堂에서 第23회 定期總會를 갖고 73年度의 事業및 決算報告書를 承認하는 한편 74年度 事業計劃및 豫算案

을 검토 통과시켰다.

이날 10시부터 열린 정기총회는 式順에 依하여 거행되었는데 韓萬春會長은 開會辭를 통해 『電氣技術人은 단결된 마음으로 電氣技術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役割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定期總會에 이어서 속개된 學術大會는 三分科別로 나누어 26일까지 양일간 계속되었다.

이 學術강연회에서는 25個演題로 多樣화된 各分野의 電氣問題 開發研究에 대한 論題 발표와 토론회도 있었다.

제 1 회 學術강연회 16日 대한기계학회서

대한기계학회는 16日 韓國科學院 강의실에서 創立후 첫번째로 學術講演會를 가졌다.

이날 學術강연회는 기초공학부문위원회 (간사 배순훈)에서 주최하였는데 강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진동에 의한 대류열전달 촉진.....박희용 (육군사관학교)
- ▲ 소결금속면에서 비등열전달.....서정운 (인하공대)
- ▲ 관내의 강제대류에서 열전달 촉진.....김두천 (한국과학원)
- ▲ 열교환기 제작.....김용주 (경원기계(주))

27日 第9회 定期總會開催

科總·貿協會館 講堂서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오는 27日 오후 2시부터 貿協會館 講堂에서 第9回 定期總會 및 學術大會를 開催키로했다. 이날 學術講演會에 이어 열릴 定期總會에서는 73年度 事業報告 및 決算報告, 감사보고에 이어 74年度の 事業計劃 및 豫算심의로 會議가 進行케 될것이다.

한편 總會에 앞서 열리는 學術講演會의 演題는 다음과 같다.

- ▲ 에너지 開發 —尹容九 博士(한국원자력 연구소 소장)
- ▲ 大陸棚開發과 國際法上的 問題點 —李漢基 博士(서울法大 教授)
- ▲ 企業經營과 技術革新 —白永勳 博士(한국산 업개발연구소 소장)

產學協同財團 임원확정 理事長에 李活씨 選出

貿協은 지난 14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設立되는 產學協同財團 발기인 總會를 열었다.

이날 열린 產學協同財團 발기인 總會에서는 理事長에 李活(貿協 명예 회장)씨를 選出하고 6명의 理事에는 朴忠勳(貿協會長) 崔亨燮(科技處長官) 金相浹(高大總長), 金允基(科總會長), 金泰東(內外經濟新聞社長), 申泰煥(前서울大總長)씨와 감사에 洪升熹(東洋通信社長)씨를 選出했다.

이날 열린 발기인 總會에서는 產學協同事業基金 30억원을 造成하고 ①學界의 各種學術研究支援, ②勤勞者의 子女를 비롯한 人材養成을 위한 장학금 지급에 사용키로 결의했다.

새會長에 함인영 博士 選出

—在美韓國科學技協—

在美한국科學技術者협회는 앞서 總會를 가지고 會長 및 任員 改選을 하는 한편 74年度 事業計劃을 審議決定했다.

이번 總會서는 新任會長에 함인영 박사를 選出하고 副會長에는 강홍열 박사, 서정하 박사, 최상일 박사, 최순달 박사등을 選出 하는 한편 신임 간사진에는 간사장 우광방 박사, 총무간사 박철 박사, 재무간사 이영수씨 그리고 편집간사 임재철 박사가 각각 選出되었다.

한편 이날 報告된 同協會의 73年度 주요 事業 실적는 다음과 같다.

1. 재미 과학 기술자 총람Ⅱ 발간준비완료 2. 도서를 수집하여 필요로 되는 국내 기관에 발송(도서 약 260권, 월간 학술지 10종목 각각 약 10년분) 3. 한국으로부터 연구보고서 평가를 의뢰받아 40여건의 평가를 완료 4. 6회의 회보 발행으로 협회의 활동상황, 국내 기술계 소식 및 구인 광고를 회원들에게 보도 5. 지부, 분회 확충에 노력한바 신설된 지부들은 미시간지부, 오하이오, 조오지아, 중서부 지부 그리고 분회로는 업스테이트뉴욕과 콜로라도 분회였음 6. 한국을 일시 방문하는 회원들에게 국내의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의 시찰 및 강연을 알선 7. 과협소개를 위한 소책자를 발행하여 미국내 및 한국내의 과학기술관계기관에 배포 8. 지부 분회 및 회원의 국내 과학 기술 지원을 위한 사업 보조

民間科學技術交流강화합議

科總 · 요하난 駐韓 이스라엘大使와

情報 · 科學技術者 交流등 적극협력키로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이스라엘國과 科學技術情報 및 科學技術者의 상호교류등 民間 科學技術交流를 強化키로 合意했다. 이는 6日 午後4時 ამნ 벤 · 요하난駐韓 이스라엘 大使가 세미 S 오후리 駐日 이스라엘 大使館科學擔當參事官을 帶同 科技總의 金允基회장을 禮訪한 자리에서 이를 提議하므로서 口頭合意를 보게 된 것이다.

요하난駐韓이스라엘大使는 이날 權寧大, 金海琳, 洪文和, 金東一科技總副會長과 趙慶哲理事등이 同席한 자리에서 長時間에 걸쳐 科技總의 활동상에 관해 설명을 듣고 이와같이 提議했다.

요하난大使는 또 이 자리에서 『科學技術交流의 強化策으로 앞으로는 特別루트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이스라엘訪問을 希望하는 科學技術者가 있을때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요하난大使는 다음날인 3日에는 崔亨燮科技處長官 金允基科技總會長 韓相準KIST所長 尹容九原子研究所所長을 館邸로 招請, 午餐을 배풀었다.

創立 25年史 발간

大韓電氣學會, 25周 맞아

大韓電氣學會는 창립 25周年을 맞이한 73年度에 學會創立 25年史를 發刊했다. 1947年 “朝鮮電氣學會”라는 이름으로 創立. 조국 해방초기의 혼란과 더불어 電氣工學의 기틀을 마련키위한 역경의 歷史가 상세히 수록되어있는 이 “電氣學會 25年史”는 4×6배판 103페이지로서 同學會의

沿革 및 構成, 電氣工學의 발전상과 事業의 결과 등이 기록되어 있다.

1949年 第2回 定期總會에서 現在의 “大韓電氣學會”로 名稱을 改稱한후 오늘까지 13代에 걸친 歷代 會長은 初代에 尹日重(3, 4, 5, 6代)씨를 비롯해서 李宗日(2, 8, 9代) 金鍾秀(7代) 禹亨疇(10, 11代) 丁性桂(12代)씨에 이어 現會長 韓萬春씨에 이르고 있다.

技術도입 相談所설치

科技處, 企業에 資料등 제공

科學技術處는 “技術도입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 상담소운영은 국내외 전문가 및 技術要員들로 구성 운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상담소는 國內企業體에서 특정제품 생산에 필요한 발명특허의 내용, 또는 세부적인 技術部分에 대한 資料등을 요구할 경우 그에 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한 것이다.

同상담소의 세부적인 상담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適正技術의 평가
- ② 외국특허의 판독
- ③ 도입절차
- ④ 조건에 따른 비용

한편 기술도입 상담소는 이밖에 국내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화공, 섬유 등 분야별로 나누어 조사분석 평가 할 방침이다.

企業經營도 技術中心으로 改革

工業所有權制度 改善 및 行政強化

= 特許協會總會·7個項決議 =

韓國特許協會는 지난7日 總會를 열고 工業所有權問題를 經營戰略의 最優先에 돌것등을 強調하는 7個項의 결의문을 채택 發表했다.

朱耀翰會長은 이날 會議에서 『올해를 「工業所有權開發의 해」로 定하고 賣出額의 一定비율을 技術開發에 投入하여 工業所有權問題를 經營戰略의 最우선에 돌것』을 강조했다.

한편 張禮準 商工部長官은 祝辭를 通하여 『工業所有權制度 및 運營의 效率化를 위하여 政府는 最大의 관심과 最善의 努力을 傾注하겠지만 業界에서도 特許協會를 中心으로하여 業界의 共同課題를 능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있었던 張禮準 商工部長官의 祝辭와 朱耀翰會長의 開會辭 및 채택된 決議文은 다음과 같다.

祝 辭

商工部長官 張禮準

尊敬하는 朱耀翰會長 그리고 韓國特許協會 會員 여러분!

오늘 韓國特許協會 第1回 定期總會에서 本人이 祝辭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생각하던 昨年 10月 貴協會가 發足を 本 후 이 제 겨우 數個月밖에 안되었지만, 그동안 同協會를 中心으로 經濟界와 技術界가 合心해서 工業所有權 問題의 重要性에 대한 認識 提高와 눈부신 活動을 展開한데 대하여 아낌없는 讚辭를 드립니다.

80年代의 繁榮되고 豊饒한 國家建設을 向해 全國民이 維新課業 遂行에 總進軍하고 있는 이

때 우리는 經濟發展의 열쇠를 先進技術의 導入, 消化와 新技術의 發展을 통한 技術革新에서 찾지 않을수 없으며, 高度의 技術集約産業인 重化學工業을 主軸으로한 100億弗 輸出, 1,000弗 所得이라는 目標 達成도 여기에서 解決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確信하는 바 입니다.

따라서 國內 市場을 爲主로 하여 資金調達과 販賣促進을 骨幹으로해온 60年代의 政策力點이나 經營戰略은 크게 修正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으며 앞으로 全國民의 科學化와 技術革新으로 國際化와 새로운 開放體制에 對處하지 않으면, 國際舞臺에서 先進諸國과의 치열한 競爭에 이겨 나갈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나라의 工業所有權에 관한 現實 問題를 돌아보면, 制度나 行政面에서도 虛點이 없는 바는 아니나, 이 問題와 直接對峙하고 있는 大部分의 企業體들이 特許에 관한 認識 自體가 未洽하여 이를 너무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指摘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經濟가 發展하고 國際間的 去來가 擴大되면 될수록 工業所有權制度의 國際化는 加速化되어 가고 있습니다. 今年 1月1日 부터 韓日工業所有權相互保護協定이 發効됨에 따라 日本을 中心으로한 外國出願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事實에 對해 政府는 勿論 企業界에서도 깊은 關心을 갖어야 할 것 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技術적으로 落後한 나라에서 技術革新을 促進시키려면 이미 開發된 先進技術을 早速한 時日內에 選別導入, 消化, 吸收하여 우리 技術로 土着化시키는 한편 이를 土臺로 우리에게 適合的 自主的 技術을 開發해 나가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戰後 技術革新을 통해 經濟成長과 輸出伸張에 成功한 나라들은 工業所有權制度를 이와같이 活用한 나라들 이었다고 함은 周知하는 바라고 하겠읍니다.

원래 工業所有權이란 國家産業發展을 促進하기 위해 創案된 制度이나 運營如何에 따라서는 技術的으로나 經濟的으로 지나친 對外依存등 惡影響을 미치는 例도 없지 않다는 점에 특히 留意해야 하겠읍니다.

政府는 工業所有權의 效率의 運營을 위해 審査審判官의 量的, 質的擴充, 豐富한 技術情報資料의 確保, 科學的인 管理體制確立에 盡力하고 있습니다.

商工行政을 責任지고 있는 本人으로서도 工業所有權制度의 確立과 效率의 運營을 위해 최대한의 關心과 最善의 努力을 경주할 것을, 오늘 이자리를 빌어 여러분 앞에 다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工業所有權制度의 效率의 運用이 企業이 살 길인 同時에 이나라 産業과 經濟와 國家가 成長할 수 있는 唯一한 길이라는 데에 깊은 이해가 있으셔야 하겠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세운 特許協會를 中心으로 業界共通課題를 解決해 나가는 한편, 企業 自體로서도 特許專擔部署의 設置, 實驗研究施設의 擴充, 先進技術의 選別 導入 推進과 公衆審査에의 적극 參與에 앞장서 주신다면 현재의 經濟危機를 克服할 수 있고 이를 土臺로 하여 우리 社會의 새로운 轉機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關心과 자발적인 協力을 바탕으로 韓國特許協會가 무궁한 發展을 거듭하기를 祈願하면서 祝辭에 가름하겠습니다.

開 會 辭

韓國特許協會 會長 朱耀翰

張禮準商工部長官, 그리고 이자리에 參席하여 주신 貴賓여러분!

오늘 本會 第1回定期總會를 맞이하여公私多忙하심에도 不拘하고, 會員 여러분과 한자리에 서 우리가 直面하고 있는 經濟難局을 克服해야

할 새로운 決意를 가다듬는 機會를 갖게 된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해는 한마디로 平溫과 激動이 엇갈린 한해였다고 하겠읍니다. 우리는 景氣回復의 繼續을 渴望했으나 急激히 밀어닥친 國際波動의 물결이 우리經濟에 새롭고 큰 衝擊과 事態를 몰아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內外的인 試鍊을 이겨나가는 길은 技術革新을 俱現하는 것이 그 捷徑임을 깊이 認識하고 우리 經濟人은 서로 合心해서 國內技術開發의 中樞의 役割을 하게 될 工業所有權의 開發保護와 企業內 活用을 誘導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해의 本會를 創立하였읍니다.

技術開發의 重要性은 지금 이 時點에서 처럼 緊要하고도 避할 수 없는 課業으로 등장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政策이 資源節約및 效率化에 集中的으로 展開시켜 나가고 있음에 비추어 이러한 課題의 達成은 무엇보다도 自生技術開發에 의해서만이 可能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모든 經營組織은 工業所有權을 土臺로 하는 新技術開發體制로 移行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重化學工業中心의 工業化를 推進해 나가는데는 技術主導型 産業構造, 技術革新 爲主의 經營戰略이 前提되지 않고는 所期の 成果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技術의 開放體制가 急速히 展開됨에 따라 韓日間 工業所有權問題가 우리에게 그 深刻性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技術蓄積基盤이 脆弱한데다 技術開發의 表象이라 일컬어지는 工業所有權에 대한 우리의 認識이 아직도 缺如되고 있는 現時點에서 불매 韓日工業所有權 保護協定の 發効를 契機로 밀어닥치는 日本人의 工業所有權 出願이 지난 1월에 이미 1,800餘件에 達했으며 그 內容을 分析하면 대부분이 發明特許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機械, 電子, 化學 등 重化學業種에 置重되었다는 點을 勘案한다면 80年代 高度産業社會의 形成을 指向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어떠한 影響을 가져다 줄 것인지 憂慮되는바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業界는 이에 對處하기 위해서도 工業所有權에 대한 새로운 姿勢確立이 하루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工業所有權問題는 지금까지 모든 企業이 疎忽히 다루어 온 分野이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打開해 나가야 할 일이 대단히 많고 어려울 것으로 豫想됩니다.

本人은 이자리에서 會員여러분과 더불어 工業所有權開發을 위해 우리 企業이 스스로 해야 할 일과 이를 助長 促進할 政策方向設定에 몇가지 提言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政府와 企業이 有機的으로 協調하여 技術革新時代에 副應할수 있는 工業所有權 開發體制基盤을 構築하는데 盡力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둘째는 技術産業社會에서 工業所有權의 重要性을 깊이 認識하여 新技術의 投資活用に 經濟界는 總力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技術中心에 의한 企業經營의 緊要性이 深大하여 지는 與件에 酬應해서 企業內 特許專擔部署의 設置運營과 管理要員의 養成에 全力을 傾注해야 할 것입니다.

네째는 開發되는 自生技術의 企業內 土着化를 促進시키기 위하여 國內外 特許公報를 비롯한 關係文獻을 備置管理하는 情報活動 體制를 迅速히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工業所有權의 不當한 設權이 經濟發展에 不利益을 가져오지 않도록 業界스스로가 能動的으로 公衆審査에 積極 參與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懸案의 工業所有權制度의 效率的 運用과 特許行政機構의 能率化에 自進協力을 아울러 促求하는 바입니다.

本會는 發足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나 그동안에도 이자리에 參席하신 商工部長官, 金容完 顧問 그리고 言論界 여러분의 뜨거운 支援으로 이만큼 發展한데 대하여 會員과 더불어 感謝드리며 아울러 熱誠的으로 本會運營에 參與하신 會員 여러분에게 머리를 숙이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工業所有權의 運營效率化와 企業內 定着化를 主導해 나갈 本會의 發展을 위하여 加

一層 指導鞭撻과 寄與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工業所有權制度 및 運營效率化에 관한 建議全文

＝韓·日工業所有權 保護協定發効에 즈음하여＝

經濟構造의 國際化 趨勢와 더불어 技術의 開放體制로의 移行은 特許權을 核心으로 하는 工業所有權 保護問題가 우리 經濟社會開發에 中樞的 關鍵이 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이에 本會는 現時點에서 工業所有權의 效率的인 運營의 要諦가 工業所有權體制的 整備現行制度의 改善및 同行政의 強化와 業界 스스로의 企業內 特許管理態勢의 確立임을 깊이 認識하고 다음과 같은 意見을 提示한다.

一, 工業所有權制度 및 行政의 能率化方案

1. 技術政策 擴大會議의 設置

① 工業所有權의 認識提高와 國內技術 開發體制를 確立하기 위하여 大統領 直屬下에 「技術政策 擴大會議」를 設置 運營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工業所有權政策立案을 통한 全國民의 科學化 事業을 有機的으로 推進하도록 할것.

② 同擴大會議는 長短期 기술개발을 세우고 이에 따라 다른 諸般 助長政策 및 隘路點의 打開方案을 講究하고 各種 研究成果의 綜合을 통한 效果的인 技術體系 확립 등의 機能을 遂行하되 政府, 經濟界 및 科學技術團體와 關係專門家로 構成토록 할것.

2. 特許局을 特許廳으로 昇格強化

① 工業所有權의 不實權利 設定이 産業技術 社會發展에 至大한 영향을 미칠 것을 勘察 特許行政의 獨立人事에 融通性이 賦與되도록 現 特許局을 特許廳으로 昇格 強化할것.

② 司法府에 特別裁判部(高等法院의 特許擔當部)를 새로이 設置하여 判事直屬下에 技術要員을 두고 法律과 技術審理를 嚴正하게

다루게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現在 特許局이 擔當 審判하고 있는 二審을 司法府의 特別裁判部로 移管할 것을 慎重히 考慮할것.

3. 審査·審判官의 資質向上 促求

- ① 先進技術에 대한 심사를 嚴密히 하고 落後된 技術의 特許權利設定防止를 위하여 技術法律 및 實務知識을 兼備한 有能한 審査, 審判官의 適材適所 配置를 原則으로 하는 人事管理와 이들에 대한 一定水準의 資格制度를 시급히 制定하여 審査 審判官의 資質을 向上시킬것.
- ② 審査 審判官의 離職防止와 終身勤務으로 誘導키 위하여 特別 優待하는 原則에서 定期 昇進昇給制度를 실시하고 技術審判官으로서의 名譽와 自負心을 가질 수 있는 法官 報酬水準의 身分 및 生活를 保障할것.

4. 特許要員의 擴大強化

- ① 工業所有權의 審査審判에는 汎用的 知識보다 專門的이고 深度있는 법률 및 技術지식이 뒤따라야 하므로 이에 副應한 擔當分野別 審査 審判官은 물론 이들을 補佐하는 要員의 增員 확보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것
- ② 特許情報의 對外依存도가 점차 커짐에 따라 關聯情報를 科學的으로 정리 활용키 위해서는 기능이 細分化된 번역사, 機械化要員, 補助員 등 專門化 要員의 긴급한 확보와 이들의 根源의인 底邊擴大를 위한 專門 技術教育制度를 실시해야 할것.

二, 企業內 特許管理態勢의 確立方案

1. 特許管理促進을 위한 助長行政 支援

- ① 技術의 優位확보가 重化學工業化의 進退를 가름하는 關鍵임을 깊이 인식하여 各企業은 導入技術의 消化, 應用技術의 개발을 위해 企業內 特許管理專擔部署와 研究室을 設置 強化하여 要員의 확보에 注力하는 한편 政府는 이미 制定된 技術開發促進法과 產業合理化法을 補完 運用함과 동시에 工業所有權의 企業化에 따른 리스트를 財政 및 稅制

面에서 補填받을 수 있도록 產業技術開發促進基金(假)을 設置할것.

- ② 新技術의 創案과 선진기술의 企業內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企業 또는 業種別 團體內에 特許管理要員의 配置를 積極 勸獎하며 특히 一定期間 教育訓練後 資格證을 賦與하는 것을 制度化 할것.

2. 工場所有權開發保護를 위한 民間經濟界의 機能助長 對策

- ① 企業內 特許管理를 위한 要員의 양성공급을 制度化 하고 이들의 資質을 높힘으로써 企業에 寄與할 수 있는 方案으로서 既存의 貿易士, 會計士, 稅務士와 同格의 特許管理士 制度를 新設하고 同制度는 民間團體가 이를 主管 運營토록 行政的으로 支援 保障할것.
- ② 國內企業의 工業所有權에 關聯된 海外技術文獻을 購入함에 있어 關係部處를 經由하는 節次上的 번잡으로 適期導入이 어려워 海外情報를 통한 技術促進에 蹉跌을 주고 있음에 비추어 技術文獻을 迅速히 購入할 수 있도록 관계 專門機關의 推薦을 根據로 하여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할것.
- ③ 公知公用된 기술이나 불실한 권리의 설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원된 事案에 대한 公衆審査에 業界가 적극 參與토록 總力을 기울여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企業內 特許專擔部署의 擴充 強化와 더불어 公衆審査制度 活用을 經濟的 共同으로 推進 促進하되 窓口는 單一化하도록 支援對策을 마련할것.



技術用役業 登錄67業體

모든 用役 登錄者에게만 發注

- 科學技術處는 技術用役育成法 施行令에 ○—
- 따라 機械部門 등 16個 技術用役部門 (79個 ○—
- 專門分野)에 對한 技術用役業 登錄을 73. 11. 1. 부 ○—
- 터 實施 한 結果 11日 現在 株式會社 惟信設計 ○—
- 公團 등 67個業體가 登錄을 마쳤다. ○—

用役業의 區別別 大分하면 綜合技術用役業으로 有限會社 코리아·엔지니어링 등 5個業體와 專門技術用役業으로 株式會社 惟信設計公團 등 13個業體 그리고 個人技術用役業으로 株式會社 韓國海洋科學技術 등 49業體로 나타나 있다.

중래에 建設部 등 관계부처에서 散發的으로 登錄되어오던 技術用役業登錄이 技術用役育成法에 따라 科學技術處에 일제히 登錄되어 일원화 되었는데 앞으로는 他人의 委託에 依하여 科學技術을 應用·産業 및 施設物의 計劃, 研究, 設計, 分析, 調查, 購賣, 調達, 試驗, 試運轉, 評價, 諮問, 指導 등 國內에서 遂行되는 用役은 科學技術處에 登錄된 用役業者에게 發注하게 되었다.

理工學系教授 特別招聘
싱가폴서, 大學過程 教授로

싱가폴 당국은 싱가포르 폴리테크닉(polytechnic)(大學過程)의 講師로 勤務할 2~3名의 韓國理工學部(土木工學 및 機械工學部門)教授를 特別 招聘하여 왔다.

招聘條件은 能力에 따라 月俸 싱가포르 달러로 S\$1,100~S\$3,500을 支給하게 된다. (싱가폴 달러(S\$)2.50불은 美貨(US\$) 1불과 같음)

싱가폴 科學技術長官兼 싱가포르大學總長인 두진세(Toh chin che) 박사와 싱가포르産業標準研究所 所長이며 싱가포르 폴리테크닉(polytechnic)의 設立委員 委員長인 이근타(Dr. Lee Kun Tatt) 박사는 崔亨燮科學技術處長官의 招請으로 지난 73년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訪韓하여 韓國의 科學技術界와 產業界를 視察한 바 있었는데 그때 韓國科學技術界의 높은 水準과 理學分野教授들의 優秀性을 인식한 끝에 이번엔 特別招聘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科學外交 多邊化로 擴大
科技處 技術협력強化策마련

74년을 「科學外交 3배확장의 해」로 정한 科學技術處는 국제문헌·정보연맹 아시아·大洋州會議을 서울에서 열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근간先進國地域에만 力點을 두어왔던 科學外交의 범위를 넓혀 에너지 資源이 풍부한 유럽지역은 물론 東南亞지역과의 協力體制도 크게 강화하는 技術協力 多邊化 事業을 추진하기로 했다.

科技處는 오는 8월 서울에서 開催될 예정인 문헌·정보관계 국제회의에는 쏘련도 참가할 것으로 예정된다고 밝히고 이미 호주와 캐나다의 資源 및 에너지 技術협력을 강화키로 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에 技術조사단을 파견하여 資源의 교도 벌릴 방침이라고 한다.

이날 에너지개발技術과 관련, 美國과 日本등 일부 先進地域에만 국한하여 벌려왔던 科學外交를 세계적인 범위로 그幅을 넓힌 것이다.

그리고 科技處는 이밖에 科學外交 3배확장 계획을 주로 다루는 방향으로 유도키로 하고 ②세계적으로 저명한 科學者 15名정도를 초청, 科學技術정보流通을 국내의 研究所가 긴밀히 교환하도록 촉진하며 ③外國의 科學技術훈련생도 2百名정도를 국내에 초청하여 教育을 시키고 ④科學技術 국제회의 개최 회수를 늘려 응용부문은 물론 기초科學部間的 學術유대도 강화토록할 것이라고 한다.

科學院新入生合格者 발표

74년도 總應試者 488名中 147名

韓國科學院은 지난 28日 74年度 신입생 147名의 合格者를 발표했다.

금년도 전체지방학생수는 일반학생 411名 產學지방생 77名으로 총응시자 488名에서 機械工學科 20名, 產業工學科 21名, 生物工學科 20名 數學및 物理學科 20名, 材料工學科 22名, 電氣 및 電子工學科 23名, 化學및 化學工學科 21名등 各科別 定員數에 依해 147名의 合格者를 발표한 것이다.

이번 합격자중 일반학생은 109名, 產學制學生이 38名이라고 하는데 일반학생 합격자의 출신學校別 합격율을 보면 서울大學校가 76名으로 제일 많고 延世大 9名, 漢陽大 6名, 高大 3名, 全南大 3名, 慶北大 2名, 西江大 2名, 항공대 1名 崇田大 1名, 仁荷工大 1名, 公州師大 1名, 嶺南大 1名, 釜山大 1名, 울산工大 1名, 釜山水大 1名이다.

產學制학생들은 거의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국방부, 제일모직,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직장을 가진 학생들이다.

各科別 합격자 名單은 다음과 같다.

◇合格者 名單◇

▲機械工學科 20名

조규중 유형선 윤건영 김고형 이승홍 이상용 문의준 이순복 이상찬 윤영환 나문주 오홍국 송창섭 이창희 조광제 배동우 안택순 허 주 조규식 김충기

▲產業工學科 21명

용세중 체서일 이기석 김형욱 손상원 이주희 손만석 이정균 박진우 박태훈 유석렬 이근재 이관우 김호식 유한중 박종선 이기현 이상진 박선섭 노신영 민계료

▲生物工學科 20명

이명로 최춘순 김성웅 김정희 양재승 박중근 이상선 한태룡 유연우 현형환 유무희 백영숙 김수근 정승화 김병기 오평섭 박은정 백성원 박영훈 석대은

▲數學및 物理學科 20명 (應用數學 10명)

이종창 박승규 전주식 이충세 김동윤 이상조 정병선 박승수 석영우 조덕운

▲應用物理 10명

이성복 김홍석 정진욱 윤춘섭 백용기 김재기 이태경 이임열 노태선 홍경희

▲材料工學科 22명

김성완 박현수 이용태 이종화 이종무 김덕중 서상희 김도연 김윤기 박중근 박기형 유한일 최수한 이정용 조천행 김지혁 박정렬 노갑수 김대룡 이진형 양성근 천길성

▲電氣및 電子工學科 23명

김원기 송성익 박형식 양승인 송문섭 황정모 강경석 홍원모 박동철 최동재 이용희 유인경 김영길 송길호 이관형 전종선 표삼수 백형완 정진용 허 염 주동혁 권구빈 최형진

▲化學및 化學工學科 21명

(應用化學 11명)

김광건 홍용기 이정학 이경우 이석현 채정석 최중현 서 근 오영기 이동수 김창홍

(化學工學 10명)

김중률 이시우 박정기 김중득 김선근 주원홍 김형식 손현명 최철림 이화섭